

차례 생략에 약식으로...설 제례 간소화 바람

음식 소박하게 준비...제비용품 찾는 발길도 크게 줄어

광주·전남 매장 대신 화장 부쩍 늘며 장례문화도 변화

#1. 최재민(50·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최근 가족회의를 열고 이번 설 명절부터 차례를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차례 비용이 만만치 않고 종교를 믿는 가족들이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차례를 생략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성묘는 빠짐없이 다녀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2. 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주부 문민정(57)씨는 남편(61)과 상의 끝에 명절 차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아머니가 살아계실때만 해도 차례상에 도미, 민어 등 5가지의 생선을 올리고 잡설부꾸미, 나지호롱 등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다. 여기에 3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차례상 비용도 큰 부담이라는

게 문민정씨의 말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준비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등 전통적인 명절맞이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 연휴에 과도한 차례상 준비 등으로 ‘명절 증후군’을 앓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중시하는 종친회에서조차 차례 예절을 약식으로 진행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다.

12일 광주향교와 광산김씨 종친회 등에 따르면 예를 중시해온 광산김씨 종친회의 제사·차례풍경이 바뀌고 있다. 광산김씨 종친회는 최근 무릎이 좋지 않거나 몸이 불편한 문중 사람들을 고려해 앉아서 절을 하거나 제배(절을 두 번 하는 것)시 무릎을 전부 굽이지 않아도 되는 등 제사·차

례 예절을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산김씨 종친회의 한 관계자는 “약식으로 제배를 한다고 해서 조상을 공경하는 의미는 달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과도한 제사 준비 등으로 화목한 가정 분위기가 깨지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광주향교도 과도한 차례 준비보다는 명절의 본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간소하게 치르던 차례상이 언제부터 권위의식이 생겨 부의 축적을 알리는 것으로 변질했다는 것이 광주향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주향교 홍준표 총무수석장은 “향교는 차례를 간소하게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조상을 모셨다”면서 “소박하게 차린다고 조상에 대한 효의 근본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장은 이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차례를 지내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상에 감사함을 표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아무런 신념도 없이 단지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약식 차례마저도 지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제사예절 간소화 바람은 광주·전남의 장례문화 변화에도 한몫하고 있다. 절차와 관리가 복잡한 매장문화보다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2016년 기준 광주의 화장률은 80.6%로, 2015년 78.1%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전남의 2016년 화장률도 전년보다 4.5%포인트 늘어난 72.1%를 기록했다. 또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에는 실물 차례상 대신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 미니어저 차례상을 1년 내내 차례놓는 게 유행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비용품을 찾는 시민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 30년 넘게 양동시장에서 제비용품을 파는 김종우(57)씨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 무렵이면 제기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면서 “이번 설명절 대목에는 겨우 목기 1세트(20만원)를 팔았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금녀의 벽 허문 여수해경

500t급 함정에 여경 2명씩 6명 배치...현장 단속요원 활동

여수해양경찰이 경비함정에서 금녀(禁女)의 벽을 깬다.

여수해경은 “지난 8일자로 최신예 경비함정 500t급 3척에 여경 경찰관 6명을 발령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8년경 1명이 2년간 경비함에 투입된 적은 있지만 대거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 경찰관이 근무하는 함정은 모두 500t급으로, 508함 오춘희(37) 경사·박슬기(27) 경장, 516함 박수아(40) 경위, 박미정(31) 순경, 517함 임신혜(39) 경사·최은진(36) 경장 등이 다. 20대부터 40대, 순경부터 경위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계급으로 구성됐다.

여경 6명은 1회 출동 때 5박6일간 바다에 머무는 경비함정에서 남자 직

승해 불법조업선박 단속에 뛰어든다.

함정 조타, 레이더 탐지 분석 등도 맡는다. 기존 여경들이 행정이나 통역

임무에 남는 구별을 하지 않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경 임무에 남성·여성 역할이 따로 없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인사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여경의 함정 승선을 확대할 방침

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최신예 516함(500t급) 1척을 신규배치해 지난 9일부터 운용하고 있다. 총 길이 62.2m·너비 9.1m 규모 516함은 5778마력 엔진 4기를 장착해 최고 35노트(시속 68km) 고속추진이 가능하다. 무장으로 20mm

발포포 1문과 50중기관총 1문이 탑재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나잇값 못하는 어른들

사소한 이유 폭행 사건 잇따라

나이가 많은데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며 상대방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은 12일 편의점 종업원에게 물품을 던지고 문을 걷어차는 등 위협

행위를 방해한 혐의(영업방해)로 김모(36)씨와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A(21)씨가 계산하고 두 손으로 카드를 건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에 올려둔 물품을 던지고, 광고판을 걷어차는 등 3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다.

앞서 지난 11일 새벽 0시 20분께에는 광주시 북구에서 술값 내기 화투 노름을 하던 정모(56)씨와 김모(61)씨가 서로 뺨 세례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화투를 치다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

됐다. 또 지난 10일 새벽 0시 53분께에는 광주시 북구의 한 주점에서 윤모(50)씨가 일행인 선배가 노래를 부르는 데 감히 방해했다며 이모(57)씨와 주먹질을 했다.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떡집에서는 김모(61)씨가 가래떡 하나를 공짜로 달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 업주의 뺨을 3차례 때렸다. 김씨는 “이 동네에 45년 살았는데, 앞으로 장사할 생각하지 말라”고 소리를 쳐 손님들을 쫓아내기도 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눈길 교통사고

12일 새벽 12시 15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백운고차도에서 포르테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모닝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닝 운전자 이모(여·31)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해 출동한 월산119안전센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또 상고...재판만 다섯번째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학부모들이 또다시 상고해 다섯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간강 등 치상)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받은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높다고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징역 17~25년을 구형한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밤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잡이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2~18년을 선고했고, 2심은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추가로 들어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화재 취약시설 안전불감증 심각

복합상가 등 367곳 특별조사

53곳서 위험사항 127건 적발

복합상가, 숙박시설 등 광주지역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상가, 숙박시설 등 광주지역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본부 화재 취약시설 367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53

곳에서 127건의 위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소방본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이후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다. 소방공무원 등 61개반 총 169명이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 점검에 나섰다. 소방시설 차단이나 정지행위, 소방안전 관리 이행 여부,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했다. 복합건축물(상가) 28곳, 여관·여인숙

등 주거시설 20곳, 대형마트 2곳, 소방센터와 영화상영관, 공화역사에서 각각 적

발됐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방화시설 훼손, 소방 감지기 미설치,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소

방시설 불량과 건축물 임의 증축 등 모두 127건에 달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방화시설 훼손 등 3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물 무단 증축, 임의 구획 및 전기시설 불량 7곳은 기관 통보했다. 감지기 추가 설

치,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펌프 설치 고장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 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무작위 선정해 비상구 및 피난

통로 확보 상태 등을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생계형 범죄 저지른 노숙자에 도움 손길 내민 경찰 ‘훈훈’



신다팔

○...광주 광산경찰이 매일 술에 취해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도움의

손길. ○...1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모(54)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7시 46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가게 앞에서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김모(여·64)씨의 20만원 상당 자전거를 훔쳤다는 것.

○...이씨는 미혼자부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으로 증세를 보이며 매일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해왔는데, 광산경찰은 도

산통주민센터와 연계해 병원 입원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거문도,토지

- 여주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라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

주인직매 H.010-3605-5000